

한화, 印尼에 원관 플랜트 수출... 글로벌 진출 발판으로

현지 국영 화학업체 공장서 착공
두 계약 총 매출 규모 1600억원
글로벌 경쟁력·인지도 제고 전략



지난 30일 한화가 인도네시아 수방시에 위치한 현지 국영화학업체 다하나와 '원관 생산 플랜트 착공식'을 진행했다. /한화

한화가 인도네시아에 원관 생산 플랜트를 수출한다.

한화는 인도네시아 수방에 위치한 현지 국영 화학업체 다하나 공장에서 '원관 생산 플랜트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흥건 한화 화학사업 본부장, 하리 삼푸무노 인니 국영기업부 차관, 다하나 부디 안토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원관은 산업용 화학 시장에서 사용되는 화공품 중 하나로 화학을 기폭시키는 뇌관의 주요 구성품이다. 원관에 접착장치를 달면 뇌관이 완성된다.

한화는 이달부터 36개월간 단계적으로 설비 구축을 진행하고 공급 완료 후에는 유지보수 관련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원관 생산을 위한 원료와 부자재 공급 계약도 동시에 체결

결함으로써 두 계약의 총 매출 규모는 약 16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앞서 한화는 지난 2012년 11월 다하나와 처음으로 '비전기뇌관' 공급 계약 체결 후 지속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현지 시장에 공급해왔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 생산 설비 수출은 지난 7년간 인도네시아 시장으로부한화의 친환경 고효율의 품질을 우수성을 인정 받은 결과"라며 "이같은 성과가 모여

현재 인도네시아 비전기뇌관 시장을 주도 하며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이러한 전략에 맞춰 2019년 올해의 사업 확대의 원년으로 삼고 글로벌 마인딩 서비스 사업 확대에 더욱 전념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한화의 각종 산업용 화학 및 화공품류는 현지에서 우수 품질력을 바탕으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발파 후 발생하는 후(後)가스 발생물

은 경쟁사 제품 대비 낮고 발파 효율이 높아 인도네시아,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현지에서 차별화된 친환경 고효율 화학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화는 산업용 화학 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한 전자뇌관도 적극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뇌관은 최첨단 전자칩에 의해 제어되는 뇌관으로 기존 전기·비전기 뇌관에 비해 초시정밀도가 우수, 발파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여기에 파쇄입도 개선, 다중 및 대량 발파 등이 가능해 굴착(발파) 작업 효율성 개선 및 공사 원가 절감 등에 효과가 있다. 이러한 특성들로 최근에는 일본, 인도네시아 등으로 전자뇌관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향후 한화는 광업이 발달한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시장 진입을 적극 타진하고 시험발파 등을 통해 제품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과 인지도를 제고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신규 시장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글로벌 마인딩 서비스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흥건 화학사업본부장은 "현재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한화의 기술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미국, 남아공, 유럽 등으로 글로벌 거점을 확대해 세계적인 마인딩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3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기업시민봉사상 첫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 '기업시민봉사상' 신설... 사회공헌 포상

포스코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실천의 일환으로 '기업시민봉사상'을 신설했다.

포스코는 사내는 물론 그룹사, 협력사, 외부 사회공헌 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기여도, 임직원 자발적 참여, 재능봉사 활성화 및 1%나눔 참여 정도 등을 사내·외 전문가들이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매년 선별해 발표하기로 했다. 포스코가 사회공헌 분야에서 외부 단체를 포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기업시민봉사상 첫 시상식에서는 포항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기쁨의 복지재단'을 비롯

해 포항제철소 클린오션봉사단, 광양제철소 반딧불전기재능봉사단, 그룹사 엔투비 봉사단, 해외법인 POSCO-Mexico의 POSAMI 봉사단, 협력사 유니테크 봉사단 등 총 6개 단체가 표창과 상금 총 3500만원을 수상했다.

기쁨의 복지재단은 지난 2009년부터 포항제철소의 지역 사회공헌 파트너로 참여해왔다. 지난해에는 포항지역 아동·청소년 돌봄과 다문화가정의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독거노인 지원 등에 적극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포스코 사회공헌 분야 외부단체 첫 수상자가 됐다. /양성운 기자 ysw@

네이버 폭풍성장... 올해는 동영상 사업 키운다

창사 이래 최초 연매출 5兆 돌파
콘텐츠 생태계 발맞춰 사업 강화



네이버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매출 5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줄었다.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등 신사업에 대한 투자와 라인, 스노우 등 주요 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지난해 영업비용으로 4조6444억원을 썼다. 전년 대비 32.7% 증가한 금액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 5조5869억원, 영업이익이 9425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9.4%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20.1% 감소했다.

네이버는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을 이어가려는 한편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네이버는 이날 콘퍼런스 콜을 통해 올해 사업 계획도 소개했다. 네이버는 동영상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네이버 한성숙대표는 "콘텐츠생

태계가 온라인 동영상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국경을 넘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올해에는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에서 동영상을 생산·편집·업로드할 수 있는 공통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메인 화면, 검색 등 사용자와 만나는 공간에서 동영상을 선택하고 재생하는 것까지 끊이지 않고 연결되도록 서비스를 개편해나가는 등 동영상 분야에서 총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범 서비스 중인 새로운 네이버 모바일 앱은 2월 중 iOS버전, 3월 중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공개된다. 기존 버전과 새로운 버전을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듀얼 앱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한 대표는 "매일 3000만명이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을 보는 만큼 단계적으로 앱 개편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실험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커머스 사업도 더욱 강화한다. 현재 네이버는 커머스를 중심으로 국내시장의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며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스마트 스토어의 가계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24만개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4% 성장했다.

AI를 기반으로 개인별 상품추천을 제공하는 에어아이템즈에 대한 유저 만족 지표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는 이를 토대로 향후 AI를 네이버 쇼핑 전반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 진출 여부에 대해서 "기존 한국 금융사업자들이 차세대 기술을 활용해 선진적 금융을 제공하고 있고 1차 사업자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선전하고 있어 네이버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핀테크 사업은 일본과 동남아 등 국가에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네이버는 주가안정 도모 및 주주 가치 환원 목적으로 자사주 73만5295주(1000억원 상당)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1주당 배당금은 314원이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LG전자, 디오스 전기레인지 판매 전년비 3배 급증

SK네트웍스

4분기 영업이익 20.4% ↑

SK네트웍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 3조5529억4000만원을 기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510억5200만원이다.

매출로는 전년 대비 11.8%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20.4%나 증가하면서 실적을 챙기는 데 성공했다.

SK네트웍스는 정보통신과 Most(직영주요소 기반 사업) 등 기존 사업 이익이 안정화됐고, SK매직과 렌터카 사업 등이 성

과를 내면서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간 실적으로 보면 매출액은 전년대비 8%가 떨어진 13조9926억3300만원, 영업이익은 3.2% 감소한 1381억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4분기 실적이 좋았던 만큼 올해 전망도 밝은 편이다. SK네트웍스는 올 초 AJ렌터카와 합병을 마무리한 바 있다. 올해에는 SK매직 경쟁력 강화와 SK렌터카·AJ렌터카의 시너지를 활용한 '홈케어'와 '모빌리티' 중심 미래 성장을 통한 수익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재용 기자

LG전자가 1월 디오스 전기레인지 판매량이 지난해 보다 3배나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전달보다도 50%나 급증한 수치다.

전기레인지는 가스레인지를 대체하는 제품이다. 디오스 가스레인지는 고성능 단열재를 사용해 용기로부터 열을 차단하고 '3중 고효율 부스터' 기술을 적용하는 등 높은 화력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구현해내면서 소비자들에게 주목받는 제품으로 떠올랐다. 단일 화구 기준 3kW 화력, 조리속도는 가스레인지 대비 2.3배까지 빠르다.

또 '잠금 버튼'과 ▲ 타이머 ▲ 일시나중 ▲ 잔열 표시 ▲ 출력 제어 등 14가지 안전기능도 갖췄다. 지난 10월에는 독일 특수유리전문업체 쇼트사 '미라듀어 글라스'를 적용한 제품을 출시해 강도도 높였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11월 창원공장에서 가스레인지를 B2B에 집중시키고, 가정용은 전기레인지만 생산하는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LG전자 H&A사업본부 쿠킹/빌트인 사업담당 이현욱 상무는 "보다 많은 고객들이 완성도 높은 디오스 전기레인지



LG전자는 1월 디오스 전기레인지 판매량이 전년비 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LG전자

만의 차별화된 성능과 편리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